

※출마예정자 사진은 현역의원, 가나다 순

### “장병완 4선 막아라”...민주당 7~8명 경선 준비

#### ■광주 동남갑

광주 동남갑에서는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대안정치)로 갈아 탄 장병완(66) 국회의원이 4선에 도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도 치열하다. 민주당과 범민주당 계열에서 7명 가량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고 표명했다. 이에 따라 치열한 민주당 경선의 최후 승자에 대한 관심이 지역이다.



장병완



서정성



유동국



운영덕



이정희



정종제



최영호

장병완 의원은 33년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하는 등 '예산 전문가'로 통하며, 그동안 호남 예산을 알뜰하게 챙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남구청장 재선 후 현재 동남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호(54) 전 청장이 활발하게 뛰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적 입지와 조직을 다졌고, 지역위원장 프리미엄을 앞세워 세를 넓혀가고 있다. 공공기관 감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 한국전력공사 감사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든든하게 지

원한 '포럼 광주' 상임대표를 맡았다. 정종제(56) 광주시 행정부시장도 민주당 경선에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에 퇴임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밑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신인기점을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의 두터운 인맥이 장점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운영덕(50) 전

부도 관전 포인트다. 서정성(48) 광주남구의사협회 회장으로 최근 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활동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유동국(56) 전남테크노파크 원장도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정진욱(55) 희망과 살림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며 보폭을 늘리고 있다.

### 송갑석·김명진 재대결...박혜자 출마 여부 변수

#### ■광주 서구갑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송갑석(53) 의원은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중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어서 내년 총선에서 재선 여부가 관심사다. 광주의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 지역 예산 확보에 앞장서 온 송 의원과 지난해 재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김명진(56) 전 민주평화당 서구갑 지역위원장의 재대결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송갑석



김명진



하헌식

송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와 예결위원 활동을 통해 2019년 광주시 국비를 정부안보다 2023억 원을 증액시켜 사상 최대인 2조2102억 원으로 확정한 점을 내세우며 표발을 다지고 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맞붙어 낙선했으나, 송기석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자 지난해 6·13 재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지난 11개월 동안 '남북관계 7법' 등 5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회에서 왕성한 활동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 의원과 서구갑 공천장을 놓고 소송전까지 했던 박혜자 전 의원은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을 맡고 있어 총선 출마 여부가 아직은

미지수다. 지난해 재선거에서 송 의원에겐 고배를 마신 김명진 전 민주평화당 서구갑 지역위원장은 부지런함의 특성을 살려 최근 전통신장 등을 돌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비서실장 6회를 역임하는 등 국회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는 등 국정경험도 갖고 있다. 지역구 골

목을 매일 돌며 '민생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는 김 지역위원장은 5·18 역사애국 처벌법 제정·망언 3인방 퇴출·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하는 가두연설을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하헌식(53) 서구갑 당협위원장도 건전한 보수정치를 대변하기 위해 당원 모집에 집중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일찌감치 총선 준비를 하고 나서면서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지도 높이기에도 나서고 있고, 지역구 행사 등을 다니며 얼굴 알리기도 열을 올리고 있다.



### ‘호남정치 1번지’ 박주선에 맞설 민주 후보 관심

#### ■광주 동남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간판으로 당선됐다 바른미래당으로 분당한 박주선(70) 의원이 5선에 도전한다. 이에 따라 박 의원 5선 저지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각 당의 치열한 진검 승부가 예상된다. 옛 동구 선거구인 동남을은 전통적으로 '호남 정치 1번지'로 손꼽히는 만큼 각 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혹독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더욱 관심을 끄는 곳이다.



박주선



김성환



김해경



문충식



이병훈



진선기



최만원



최병근

바른미래당 웃음 일고 있지만 박주선 의원은 평소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민주평화당 탈당파 의원들과의 결합 여부도 관심사다. 박 의원은 지역구 내에 전통적인 지지기반이 있고, 오랜 시간 함께 한 조직이 탄탄하다는 게 강점이다.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동구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88.7%)로 당선됐고, 이후 동구에서 내리 다섯을 한 만큼 지지기반이 탄탄하다. 민주당에서는 이병훈(62)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선 총선에서 박 의원과 두 차례 맞붙어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맡아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광주은행 최초 여성임원인 김해경(56) 남부대 겸임교수와 최병근(57)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김성환(58) 전 동구청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되면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충식(61) 동남을 당협위원장이, 정의당에서는 최만원(54) 동남구위원장도 출마할 예정이다.

### 민주당 4050 신인들 천정배 7선에 도전장

#### ■광주 서구를

광주시 8개 선거구 중 내년 총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으로 꼽힌다. 현역인 천정배(65) 의원의 7선 도전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0~50대 초반의 정치 신인들이 대항마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전 의원의 대항마를 받게 될 민주당 경선이다. 특히 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군 3명이 같은 또래에서 이들의 대결도 관심거리다.



천정배



고삼석



문상욱



양향자

우선 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뒤 경기도 안산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4선을 했다. 이어 2013년 광주에 등지를 튼 그는 2015년 4·29 광주 서구를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듬해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54.5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6선에 성공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후보 군으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당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52) 전 삼성전자 사장이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과 서구를 지역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전 의원과의 리턴매치를 준비중이다. 최근 민주당 일본경제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 위



유종천



이남재



최화용

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사임한 양 전 사장은 내년 총선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항마'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남재(51) 시사평론가도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남재는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1대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고 현재는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폭넓은 행

보를 보이고 있다.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며 인지도 높이고 있는 그는 서구를 밀바닥 표심도 다지며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또 고삼석(52)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도 경선에 나설 준비를 하고, 최화용(44) 전 참여자치21 대표도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문상욱(59) 서구를 당협위원장으로 지역에서 30년 넘게 활동을 지속하며 당세를 확장하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유종천(49) 서구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 조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조용한 생활 최적지 4500만원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항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무안 문탄면 영산강점 땅 48900㎡ 팬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복지병원 등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무안군 운남면 하모리 11607㎡ 투자에 좋은 농림 1억5천 매도 3억6천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서동 산7외 137구 허가지역 땅 342㎡ 매도 4억3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줄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좋은 2억
- 사할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은 8억
- 윤양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상가건물

- 경남 하동군 회개면 범암리 청정지역 땅 1372㎡ 팬션전환 269㎡ 신고 7억5천 경관 최고 은행 2억7천 매도 4억6천
- 서구 치평동 대원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 신축 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물 613㎡ 안침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영광 염산면 비닷기 땅 2466㎡ 팬션 2동 은행 등 2억 급매 3억6천
- 영광 학산면 영산강점 산 97404㎡ 김정 8억4천 은행 등 5억8천 시설도 적합 3천만
- 오양시설 최고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중축기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목포대 인근 무안정계 2중 주거지 땅 4413㎡ 축축 2억4천 투자에 좋은 4억4천
- 나주시 내대동 상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